

#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崑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替口座: 010983-31-0 513119  
私書函: 서울清涼郵遞局137號

## (非賣品)

이會報는 通常會費年間 1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는 卽時에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金氏 中始祖 高麗國都元帥上洛君忠烈公 諱金方慶 尊影

# 海東名將傳

4

大提學文獻公 洪良浩 原作

(전호에서 계속)  
원나라의 일본 정벌(하)

충렬왕(忠烈王) 원년(서기 1275)에 왕은 김방정에 개첩의 중찬상장군(議中贊上將軍)으로 벼슬을 고쳐 주었다.

왕 2년(1276)에 김방정은 원나라로 가서 세조의 생일을 축하하며 폐백을 올렸다. 예가 끝나고 전(殿)에 올라 갔는데 유사는 그를 송나라 군신의 다음 차례에 앉힐 것을 청하자 세조는 이렇게 말하였다.

「고려는 의를 따라 스스로 우리에게 의지하는 나라이고, 송나라는 힘이 다하여 항복하였으니, 어찌 같이 다른 단말인가?」

그는 또 말하였다.  
「김재상(김방정)은 큰 공이 있으므로 호두금패(虎頭金牌)를 준다.」

으로서 금부(金符)를 띠게 된 것은 김방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돌아올 때 왕은 성을 나와서 맞아들였다.

왕 6년(1281)에 김방정은 글을 올려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였는데, 왕은 승지를 파견하여 돈독히 타이르며 더욱 분발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은 나이는 비록 늙었다더라도 나라를 위한 공로가 특별하니 어찌 가벼히 물러나실 것을 허락하여 줄리요? 또 지금 원나라에서는 일본을 정벌하라는 명령이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역시 마땅히 원수(元帥)를 두어야 하겠는데 실로 공로가 없는 사람을 추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왕은 드디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승지 조인규(趙仁規)를 파견하고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에 글을 보내, 「배신(陪

二백 번을 주며 일본을 치는 장

臣) 김방정을 원수부(元帥府)의 구당공사(勾當公事)에 참여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니, 세조는 조서를 내려 김방정에 중선대부 관영 고려국도원수(中善大夫 管領高麗國都元帥)의 벼슬을 주었다.

이 때 김방정은 원나라로 가서 새해를 축하하였다. 세조는 대명전(大明殿)에 나와 四품 이상의 벼슬아치들을 전(殿)에 불러, 잔치에 나오게 하였다. 김방정도 여기에 참여하였는데 세조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자리를 승상(丞相)의 다음에 앉게 하고는, 진기한 음식을 주었고, 또 원반과 고기국을 주며 「고려 사람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나?」 김방정은 「삼일 동안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돌아오는데, 세조는 환과 화살과 칼과 활, 갑옷, 활, 큰 도끼, 또 백 번을 주며 일본을 치는 장

官) 김방정을 원수부(元帥府)의 구당공사(勾當公事)에 참여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니, 세조는 조서를 내려 김방정에 중선대부 관영 고려국도원수(中善大夫 管領高麗國都元帥)의 벼슬을 주었다.

이 때 김방정은 원나라로 가서 새해를 축하하였다. 세조는 대명전(大明殿)에 나와 四품 이상의 벼슬아치들을 전(殿)에 불러, 잔치에 나오게 하였다. 김방정도 여기에 참여하였는데 세조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자리를 승상(丞相)의 다음에 앉게 하고는, 진기한 음식을 주었고, 또 원반과 고기국을 주며 「고려 사람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나?」 김방정은 「삼일 동안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돌아오는데, 세조는 환과 화살과 칼과 활, 갑옷, 활, 큰 도끼, 또 백 번을 주며 일본을 치는 장

官) 김방정을 원수부(元帥府)의 구당공사(勾當公事)에 참여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니, 세조는 조서를 내려 김방정에 중선대부 관영 고려국도원수(中善大夫 管領高麗國都元帥)의 벼슬을 주었다.

하였는데, 지금 一개월이 지나, 아직도 군량이 남았으니 남쪽 군사도 오는 것을 기다려 힘을 모아 치면 반드시 적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은 감히 들어가자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 때 배범(裨範)문호가만(蠻軍)십여만 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배는 모두 九천 척이었다. 八월에 이르러 큰 바람을 만나서 만군은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시체가 조수를 따라 포구에 밀려들어 포구를 막아 밝고 다닐 참상에 이르렀다. 이 때 드디어 군사를 돌려 왔다.

왕 9년(1283)에 김방정은 또 글을 올려,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니, 왕은 그를 추종 정난(忠肅)정인공신(正人公愼) 삼중대광(三重大匡) 판전리사(判前理司) 세자사(推忠靖難定遠功臣世子師)의 벼슬로 승진(陞)하게 하고 친의령(僉議令)을 더하고 상락군(上洛郡)을 더하고 식실봉(食實封三百戶)을 봉하였다.

하루는 김방정은 조상의 선영(先塋)에 다녀 올 것을 원하니 왕은 계자(季子) 순(恂)을 태백산(太白山)에 가서(祭)하여 돌아오게 하였다. 이에 김방정은 고향에 이르러 친구들을 위하여 며칠 동안 머무러다가 돌아왔다.

왕 26년(1300)에 김방정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에 그 나이가 81살 9개월이었다. 김방정은 충성되고, 곧고, 미덥고, 너그르며, 그 도량이 넓고 커서, 조그마한 일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고 굳세고 말이 적으며 전고(典故)를 많이 알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데는 착오가 없으며 몸가짐을 검소하게 하고 부지런하며, 옛날의 친구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평생토록 임금의 잘 잘못을 말하지 않았으며 비록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 있으면서도 나라 일을 근심하기를 집안 일과 같이 하였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왕은 반드시

그에게 물어서 처리하였다. 그런데 그는 나라의 정사를 오랫동안 맡아 보았고, 또 금부(金符)를 받고, 도원수(都元帥)가 되어, 권세가 한 나라에 기울었고, 그 동장이 여러 고을(州郡)에 퍼져 있었으며, 휘하 장병들은 내상(內廂)이라는 이름으로 날로 그 집을 끼고 드나들며 권세에 불고, 위엄을 빌어 다하며, 덩방대도 이를 금하지 못하였다. 또 일본을 정벌한 싸움에 대한 공을 논하여 벼슬을 주고 상을 내리는 일이 자못 고르지 못하여 사람들은 많이 원망하였다.

충신왕(忠宣王)은 김방정에 세손(世孫)으로 정국공신(正國公愼) 삼중대광(三重大匡) 판전리사(判前理司) 세자사(推忠靖難定遠功臣世子師)의 벼슬을 추증하고,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주고 신도비(神道碑)를 세우도록 명령하였다. (끝)

다음 호에는 충무공 휘시민(忠武公諱時敏)의 사기를 게재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三개월 동안의 군량을 준비 하였다.」

# 祝 發展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安東金氏按廉使公派大宗會

會 長 金 在 晚  
清州市牛岩洞五一六一  
電話: 二二六八三

金 道 應

忠南天原郡 東面長松里

三育大學 同門會 會長  
第七日安息日 會 再臨 教會

牧 使 金 寬 浩

서울: 江南區 方背洞 九四七-1  
電話: 五九一-六二七九

태주산업

代表 金 泰 雄

서울: 東大門區 新內洞 四九五-149

## 1984年度 定期總會 開催通知書

尊体候萬安하시고 宅內諸節均寧하심을 仰頌且祝하나이다.  
就悚 다음과 같이 定期總會를 開催하오니 無漏 參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全國 數十萬 宗人들에게 一히 通知書를 發送치 못하오니 隣近 宗人들에게 널리 口頭 또는 書信連絡하시와 無漏 參席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記

- 日時: 1984. 4. 22. (日) 午前11時正刻부터 午後2時까지
- 場所: 맘모스호텔 7층 나이트클럽(서울 청량리역 앞 舊 대왕코너) 7층. 入口는 청량리역 앞 우측 맘모스入口 나이트클럽 전용 에레베이터나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會費: 3000원(주식 및 기념품 제공) 외에 통상회비 1000원 제 4000원식 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案件: 1. 1983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2. 1984년도 예산안심의  
3. 임원보선 및 기타사항.

1984. 4. 1  
131 서울特別市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明 會 白



(전호에서 계속)

이장용(李藏用)은 도시와 부락에 들어 갈때마다, 거기의 주민들에게, 지금이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는바 없었다. 지금, 까지 있었던 지방관아(地方官衙)의 관리들이나 수비병들은 최란(崔坦)의 난(亂) 이후 그의 군부하인 부서(部署)를 이탈하고 행방을 감춰 버렸고, 관아(官衙)도 병사(兵舍)도 어디고 텅 비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러한 일에 그다지 관심도 없고, 각자 자기들의 생계를 세워 가는 데 정신이 없었다.

이장용(李藏用)은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면서, 압록강을 건너다. 강을 건너는 배는 의주(義州)로부터 대안의 파사부(婆娑府)에 이르는 사이에, 요(遼)의 대(代)에 축조(築造)된 대부성(大富城)이란 성(城)이 있는 하중(河中)의 섬(島)에 기항(寄港)하였는데, 거기서 이장용(李藏用)은 한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 최란(崔坦)이가 몽고에 들어간 뒤고 이 섬까지 달려와서, 여기서 고려로 향(向)하는 몽고의 사자(使者)도 도루와 만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루는 고려에 가는 것을 중시하고, 이 섬에서 되돌아가고, 최란(崔坦)도 몽고에 들어가는 것은 중지를 하고 고려에 되돌려 보겠다는 것이다. 이장용은 거기까지 자기 품고 있던 불안한 생각은 막연한 것이었으나, 한가지 양상(樣相)이 더 오르는 것을 느꼈다. 최란(崔坦)은 스스로 난(亂)을 만들어 자기의 세력 확보를 꾀하고, 몽고군의 출동을 요구하려고 하였던 것일까. 그래서 그의 양해가 도루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이장용(李藏用)은 이렇게 생각하여 오다가 문득,

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생

자하고 있는 일에 대한 돌연(突然)한, 그리고, 단호한부정(否定)의 표현(表現)이었다.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장용은 고목(枯木)같이 뼈적마른 몸을, 경련(痙攣)이라도 일으킨듯이 몹시 벌벌 떨고 있었다. 참을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장용은 무의식중에 일어설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자(侍者)들에게 안겨 멈추었다. 배(船)는 강(江) 중류(中流)에 나와서, 강물결이 서로 부딪혀 합쳐 흐르는 가운데를, 물결을 타고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이장용은 겁 푸르게 보이는 강(江)의 수면(水面)을 바라보며, 지금 자기를 엄습(嚴襲)해 온 생각을 필사적으로 자기

로 부터 있어 버릴려고 하였다. 아무리 있어 버릴려고 하여도, 그 생각은 끈질기게 얽혀져 있었다. 최란(崔坦)은 바야흐로 자기가 수중(手中)에 넣은 부일대의 땅을 가지고 몽고에 귀부(歸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단호히 몽고군의 출동을 구(求)한다는 것이라면, 저 북방(北方)의 여러 부락에서 본저와 같은 벽보의 계시(揭示)는 필요 없었을 것이었다. 그 문구(文句)는 임연(林衍)을 치기 위한 몽고군을 환영(歡迎)하는 포고문(布告文)으로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다. 가장 그 땅에 밀착(密着)해 있는 그 땅의 주민과 관계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 風濤

(4)

## 井上靖著 金崙會譯

백성들이, 그러한 일에는 아무 관심없이, 황량(荒涼)한 야원(野原)의 가운데 작은 경작지를 지키며 살아갈 뿐이었다. 일행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말(馬) 등에 실려, 흔들거리며 계속 길을 걸었다. 짐 시간 이외에는, 어디서든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종자(從者)들은 이장용의 몸을 생각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쉬어 가지고 권유했으나 이장용은 허락하지 않았다.

동경(東京) 요동(遼東)에 들어선 즉, 거리는 군사(軍)와 군마(軍馬)로 흥망하였고, 지금의 혼란(混亂)을 일으키고 있었다. 군인 부장(將領)은 분명히 고려 사람이 틀림없이 보이는 젊은 사람들 이 거리를 몇 사람씩 짝을 지어

나오고 있다는 등, 그러한 말도 퍼 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무장이 어떠한 군대를 지휘하고 이곳에 있는지, 실지의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동경(東京) 요동(遼東)에 들어가던날 밤, 이장용은 김방경(金方慶)이 이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자(使者)들을 팔방(八方)으로 파견하였으나 마침내 그 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김방경(金方慶)을 만나기만 하면, 다소라도 사태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연도(燕都)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해야 좋을지 그의 지지도 받을 수 있었을 데, 이장용의 그런 희망은 적중하지 않았다.

로 세조는 고려에 출병(出兵)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반드시 몽고군의 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아니다. 세조 후비(王位)의 목적인 고려왕가의 왕위(王位) 계승을 바로 잡자는 것이 아니고, 고려에 출병시키자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세조가 설령 불령(不逞)한 도배라 할지라도, 현재 그 지방의 실력자로서, 고려의 북부 일대의 땅을 가지고 귀부를 청하여 왔을 때,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장용은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 입으로 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불길(不吉)하게도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장용은 세조에 알

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얼얼이 아워어진 심(諫)과 만났다. 심(諫)과 만나서 이장용은 압록강을 건너는 선중(船中)에서 자기들을 엄습(掩襲)할 불길한 생각이, 지금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군의 진주(鎭州)를 취하(取下) 받고 싶었는데, 알현(謁見)이 허락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할 수는 없었다. 세조가 고려내부의 분쟁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한시라도 빨리 이장용을 접견(接見)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 이장용은 남들이 가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불안한 생각을 느꼈다. 심(諫)도 스스로 재삼 세조에 알현(謁見)할 것을 청원했으나, 정무(政務)가 많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장용이 연도(燕都)에 들어가서 몇일 후가 되는 12월 9일에, 원종은 몽고에 입조하기 위하여, 강도(江都)를 출발하였다. 일행(一行)은 총 7백 명, 봉사(奉使) 허덕(赫德)이도 같이 동행했다. 부재중의 국정(國政)은 심(諫)의 아우 중(攄)이 집정(執政)하기로 되어 있었다. 원종과 같이, 임연(林衍)도 세조로부터의 입조를 요구했는데, 임연은 이 일행에 끼이지 않았다. 이미 원종도 왕위에 부위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 세조로부터의 입조명령은 그의 미를 상실(喪失)해 버렸다는 것이 임연의 생각이요 해석이었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는 몽고에 입조하기를 두려워했다. 고려 정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임연(林衍)에 대해서 몽고 입조를 권고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왕(王)의 폐립(廢立) 문제로 큰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은 세조로부터의 압력이 가해졌던 것이고, 고려국내(高麗國內)로서는 의연(依然)히 삼별초(三別抄)의 명칭으로 불리어져 있는 강도의 특별경비대(特別警備隊)를 수중에 넣고 있는 실력자(實力者)였다. 마치 현재의 임연은 손에 잡은 짐승을 가지 않고, 사태의 귀추에 따라 무슨 일을 할는지 알 수 없는 불유쾌한 기미(氣味)가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 安東金氏清北道宗親會

- 會長 得榮
- 副會長 在夏·晋會
- 理事 喆浩·漢默·亨默
- 在鳳·度演·在旭
- 基會·士會·優會
- 聖會·奎馨·泰日
- 泰玉(大) 泰玉(提)
- 監事 章會·斗會
- 總務 彰浩

### 安東金氏清州市宗親會

- 名藝會長 在夏·在華·亨會
- 明應·章會·萬應
- 會長 得榮
- 副會長 士會·允會
- 優會·庸振
- 理事 喆浩·在鳳·在德
- 在佶·昌會·斗會
- 晟會·洛會·泰順
- 弼鉉·東洙·得求
- 奎馨·泰甲·在國
- 聖會·泰成
- 總務 彰浩

### 동광인쇄소

성부구정삼동(국민은행옆)  
電話: 九一四一〇四三八



### 忠武公廟庭碑復元 聖域化事業推進中

忠武公(諱 應河)을 享祀하는 褒忠祠는 그 位置가 軍事分界線에 속함으로 一九七三年十一月에 第三軍司令官 李世鎬 大將의 主선으로 肅軍○○부대 鍊兵場으로 移建 後 十年이 지나도록 軍部에서 管理하는 中 이제 後孫들의 꾸준한 努力과 推進委員會의 활발한 運營으로 말미암아 褒忠祠의 復元과 아울러 廟庭으로 移建하여 聖域化 하게 된다.

이는 오직 吾金의 一大慶事인 同時에 또한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江原道와 鐵原郡에서도 큰 期待 속에 推進하고 있고 江原日報에서도 이를 報道하였기에 轉載한다(관련 史記는 己未大同譜 一卷二四五頁~二五二頁를 參照하기 바람)

### 金應河장군廟庭碑 복원 聖域化

10일 鐵原군과 金應河장군 묘소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金知律)의 代表로 鐵原군 忠武公廟庭碑 10日 復元을 聖域化 하는 聖域化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鐵原군 忠武公廟庭碑는 鐵原郡 忠武公廟庭碑가 鐵原郡 忠武公廟庭碑(天王池)로 移建하여 復원하고 있다.

鐵原군 忠武公廟庭碑는 鐵原郡 忠武公廟庭碑(天王池)로 移建하여 復원하고 있다.



金應河장군 廟庭碑

### 諡法

시호(諡號)란 국왕의 친족인 종친(宗親)이나 문·무(文·武) 관 중에서 정일품(正一品)의 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그 공적에 맞도록 나라에서 정해 주는 법이었다.

그러나 뒤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또는 학덕(學德)이 고명한 유현(儒賢)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절신(節臣)들은 정일품(正一品)이 못되어도 그 자손들이나, 남아 있는 문하생(別世門下生), 혹은 후학(後學)의 유림(儒林)과 같은 관계인들이 제시한 행장(行狀)이나 시장(誌狀)에 의해서 이를 예조(禮曹)에서 심사한 후에 봉상시(奉常寺)를 경유해서 홍문관(弘文館)에서 시법(諡法)에 합당한 시호(諡號)를 정해 내려 주었다.

시법은 원래 '주공시법(周公諡法)'이나 '춘추시법(春秋諡法)'과 같은 옛날 부터 사용해 온 중국의 시법을 사용했는데

- 【忠】 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維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忠不忘國
- 【貞】 清白守節 清白自守 直道不墮 不隱無屈 大慮克就
- 【義】 因事有功 有功征伐 甲冑有勞 辟地有德
- 【安】 好和不爭 寬柔和平 與人無兢 兆民寧賴
- 【章】 出言有文 溫克令儀 法度大明 敬慎高明
- 【平】 執事有制 有剛治紀 法度皆理
- 【武】 折衝禦侮 克定禍剛 強以順 保大定功
- 【禮】 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安衆 任不躁進 正容寡言
- 【良】 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人愛人 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人愛人 善合法道(度)
- 【孝】 慈惠愛親 繼志成事 能養能恭 慈人愛人 五宗安之 秉德不回 大德行節 協時榮享
- 【惠】 柔質慈仁 柔質慈民 柔質安民 心慈慈詳
- 【義】 先君後己 先公後己 見義能忠 行義能終 制事合義 取以不貪
- 【度】 心能制義 制事合義 制事得義

시호에 사용하기로 정해진 글자는 무려 백(百)십자(字)가량이나 되었는데, 그 행적(行蹟)에 알맞은 두개의 글자를 따서 쓰도록 하였다.

그 시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몇가지 추려서 다음에 기록해 보기로 한다.

【忠】 經天緯地 道德博聞 博學好文 勸學好問 博學多識 慈惠愛民 忠信愛人 剛柔相濟 愍民惠禮 修德大遠 施而中禮 修兩班制

【貞】 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維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忠不忘國

【義】 因事有功 有功征伐 甲冑有勞 辟地有德

【安】 好和不爭 寬柔和平 與人無兢 兆民寧賴

【章】 出言有文 溫克令儀 法度大明 敬慎高明

【平】 執事有制 有剛治紀 法度皆理

【武】 折衝禦侮 克定禍剛 強以順 保大定功

【禮】 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安衆 任不躁進 正容寡言

【良】 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人愛人 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人愛人 善合法道(度)

【孝】 慈惠愛親 繼志成事 能養能恭 慈人愛人 五宗安之 秉德不回 大德行節 協時榮享

【惠】 柔質慈仁 柔質慈民 柔質安民 心慈慈詳

【義】 先君後己 先公後己 見義能忠 行義能終 制事合義 取以不貪

【度】 心能制義 制事合義 制事得義



(元榮記)

### 敬順大王陵享 參祀 案内

新羅汎金氏大宗院에서 主管 하는 敬順大王 春季陵享을 다음에 依하여 舉行하오니 希望하는 宗親께서는 事前連絡 바랍니다.

다 음

日 時 一九八四年五月三日 正午

集會場所 서울運動場 앞(當日 午前八時까지)

會 費 約三千원 予定

### 訃告

大宗會 常任顧問이시며 提學公派 會長이신 利浩(號 栢岡)氏께서는 宿患으로 一九八三年十二月三十日(陰十一月二十七日) 午前十時에 享年八十三歲로 別世 하였습니다.

栢岡公께서는 天原郡並川面佳田里에서 出生, 多年間 並川面長으로서 많은 治績을 남겼고, 爲先事業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으며, 특히 己未大同譜 刊行時는 大宗會의 常任顧問으로서 特殊한 業績을 남겼습니다.

社會나 國家에서 반드시 훌륭한 人物이 될것은 추호도의 심할 餘地가 없으며 이런 人들을 將次우리 大宗會를 이끌고 나간다면 日就月長으로 더욱 發展해 나갈것은 또한 明若觀火한 일입니다. 眞眼目으로 將來를 내다 볼때 벌써부터 가슴 벅차오르는 感을 禁할바 없습니다.

그간 特志宗人 여러분들께서 誠意와 협조를 베풀어 주시어 이미 幾百萬원인 獎學基金이 續續 들어오고 있습니다.

願컨대 여러 宗親들께서 이 趣旨에 積極 贊同하여 주시와 將來有望한 後裔들을 爲하여 獎學事業推進에 넓은 參與意識을 가지시고 積極의 人 協조와 성원을 보내주시와 所期의 目的을 하루 速히 達成하도록 여러 宗人 앞에 머리를 조아리려 懇切히 呼訴하는바입니다.

一九八四年四月一日

上洛獎學財團推進委員會 金明會外 推進委員一同 白

### 獎學財團構成에 對한 趣旨文

總網羅하여 五萬餘卷에 達하는 大同譜를 完成하였음은 吾金有史以來 가장 거창한 事業이었음이다. 그리고 一九八二年五月二日에는 忠烈公影幀閣을 建立하였으며 그간 四次에 亘하여 譜鑑一, 二, 三輯과 世系年鑑等 數千卷에 達하는 冊子를 發刊하는 등 지난간 十五年 동안에 實務陣의 눈부신 활약과 特志宗人 여러분들의 物心兩面의 積極의 人 協력에 依하여 驚異의 發展을 이룩하였음이다.

前述한바와같이 지난간 十五年間에 爲先事業과 大小事業을 거이 다 有終之美를 거두었고 八三年 八月부터는 우리가 尙상 苦待하는 大宗會報도 마침내 發刊하여 全國宗親間에 相互親睦과 通連연락

들을 總網羅하여 五萬餘卷에 達하는 大同譜를 完成하였음은 吾金有史以來 가장 거창한 事業이었음이다. 그리고 一九八二年五月二日에는 忠烈公影幀閣을 建立하였으며 그간 四次에 亘하여 譜鑑一, 二, 三輯과 世系年鑑等 數千卷에 達하는 冊子를 發刊하는 등 지난간 十五年 동안에 實務陣의 눈부신 활약과 特志宗人 여러분들의 物心兩面의 積極의 人 協력에 依하여 驚異의 發展을 이룩하였음이다.

前述한바와같이 지난간 十五年間에 爲先事業과 大小事業을 거이 다 有終之美를 거두었고 八三年 八月부터는 우리가 尙상 苦待하는 大宗會報도 마침내 發刊하여 全國宗親間에 相互親睦과 通連연락

과 유대를 一층 強化하여 오고있음이다 그러나 宗事는 限이 없고 끝이 없읍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重大한 事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後孫英才들을 育成하여 훌륭한 人材를 養成 國家의 棟樑之材를 輩出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緊要한 事業입니다.

이 事業의 目的을 成就하기 爲해서는 最小限度 五千萬원 이상의 基金을 造成하여 獎學財團을 構成하고 文教部當局의 財團法人承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國內 여러 姓氏들 中에는 獎學財團을 運營하며 어렵고 우수한 英才들을 많이 育成하고 있음입니다. 우리는 十五年 동안 爲先事業과 基礎確立에 專念하다 보니 獎學事業에 晚時之嘆이 不無하나 이제부터는 늦지는 않았읍니다. 우리 全國 數十萬宗親들이 一致合力하며 十匙一飯으로 誠意를 기울여 參與意識을 가지고 적극 協조하여 주신다면 그다지 어려운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獎學基金이 確保되는 次第로 家勢가 貧困하고 學校成績이 優秀한 子女들을 中, 高, 大學生으로 選別하여 每年 계속적으로 獎學金을 支給하게 될것입니다.

細部的인 事項은 任員陣들이 구체적으로 具體的인 案을 세워 원활하게 運營해 나갈것입니다. 將次 大宗會의 獎學金으로 좋은 學校를 훌륭한 成績으로 卒業하여 社會에 進出한다면 이런 人材들은







# 近代化와 道德並行

## 按廉使公派 明振

우리 大韓民國은 亞細亞 東端의 한쪽에 위치하며, 國土의 面積은 비록 적으나, 檀君聖祖 開國以後로 草木이 茂盛하고, 山水 또한 명미하며, 氣候가 快適하여 옛부터 金수강산이라 불려 왔다.

民族은 原始時代의 수렵生活을 거쳐 農耕生活로 오는 동안에 身體가 健壯해지고 활을 잘 쏘았으므로 中國 人들은 東夷라 불렀으니, 이는 큰 활(大弓)을 잘 쏘는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道德을 尊重하여 왔다. 그래서自古로 『禮義東方의 君子國』이란 愛稱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現實은 어떠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世上은 자고 나면 변할 마지, 빠른 速度로 變換하는 世態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人들은 새로운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찾아서 꾸준한 研究와 開發에 피나는 노력을 繼續하고 있다. 우리들의 衣食에 關한 問題를 비롯해서, 日 用 生必品이나, 住宅의 改良들은 매우 빠른 速度로 進歩를 거듭하고 있을 뿐 아니라, 家族들의 生活 樣式도 크게 變化하였고, 따라서 人들의 思考方式이나 그 內容 또한 變化로만 進行되고 있다.

옛날 시골에서는 아들·며느리·孫子가 한 집에 살면서 같은 일(農事)에 從事하고 같은 生活을 하면서, 衣食을 自給하고, 剩餘物은 市場에 出荷해서 生活에 必要한 物品을 購入了다. 지금도 시골에서는 五日장으로 한 달에 六回式의 장날이 있지만, 이 장날의 制度는 우리 나라에서 物貨 相通을 하는 가장 좋은 手段의 하나이었다. 또 農事 철에는 품아시로 서로가 相扶相助하든지 두레를 짜서 協同하는 組織은 世界의 어느 民族에게도 찾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風俗이었다. 이러한 制度는 아득한 新羅의 時代부터 千餘年間이나 계속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現實은 어떠한가? 大都市를 中心으로 한 商工業의 發達은 農村의 靑壯年을 유치하는 要素가 되고 남은 老弱者만이 先祖의 遺業인 農土를 놓지 않고 營農에 從事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人夫를 고용하랴 해도 사람이 없는 형편이니, 이제는 營農을 代行하는 企業이 생기고 農機具가 機械化되고, 農業協同組合·水利組合·土地改良組合等 營農을 도울 수 있는 組織이 急激한 趨勢로 發展하고, 이는 農村의 近代化는 都市近代化에 步調를 같이 하면서 병행하는 現實

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住民들의 生活에 대한 關心이 점차로 높아짐에 따라 交通과 通信의 施設과 教育機關도 그 범위가 늘어 나고 商品의 교역권도 擴張되면서 住民들의 공동생활 範圍도 部落單位를 넘어서 大單位로 擴大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옛날 人들은 祖上을 崇拜하고 家門을 尊重하며 親族間에 和睦함을 最上의 美德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아름다운 美德을 가졌던 祖上의 後孫인 現代의 靑壯年은, 家門보다는 個人을 祖上보다는 오히려 夫婦間의 幸福에 더욱 關心을 가지고 義理보다 實利에만 치우쳐 가고 있는 오늘의 實情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보고 듣고, 또한 직접 겪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人들의 思考方式은 生活樣式에 수반해서, 함께 變換해 가고 있고, 이는 人類에게 社會라는 制度가 생기고부터 現代까지 꾸준히 變換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變換의 과정은 人口의 膨脹과 生産力의 增加에 比例해서 활동의 舞台가 더욱 넓어져 왔고, 보다 풍부한 生活을 할 수 있는 方向으로 發展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人間의 無限한 慾求를 充足시키기 위해서 無數한 集團 機能이 層生첩출하는 同時에 社會의 構造 또한 合理的인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 할 수도 있다.

앞에서 近代化란 用語를 쓴 일이 있는데, 近代化란, 文字 그대로 先代의인 狀態에서 現代의인 狀態로 옮겨 가는 과정, 即 農村은 農事를 爲主로 하고, 農村生活를 爲主로 하는 狀態로, 또 工業은 工業을 爲主로 하여 都市生活를 爲主로 하는 狀態로 變換해 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近代化란 한마디로 工業化·都市化의 過程을 말 함이라 할 수 있다. 工業化 過程에서는 技術의革新을 通해한 生産力의 向上으로 國民經濟와 生活水準이 보다 높아져 간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 때, 近代化는 經濟水準의 變化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人들의 思考方式이나 行動樣式의 變化程度도 意味 한다.

生産技術이나 生産의 組織만 변하고 人들의 생각이나 行動이 옛 대로의 狀態로 머물고 있어 되겠는가? 그러함으로 近代化는 물질적임과 同時에 精神의이며 制度의으로 發展되어야 하며 보다 나은 生活을 이룩 하는 過程을 말 하는 것이다. 産業先進國家에서는 이미 數世紀前부터

### —◇ 消 息 ◇—

◇ 判書公(諱 植)·忠肅公(諱 承用)·檢校公(諱 厚)·郡事公(諱 七陽)四代位 歲享을 年例에 依하여 陰 3月16日에 全南 康津郡 鶴川面 土馬里 南山 墓庭에서 舉行한다. 會所: 郡東面 錦江里

◇ 大護軍公(諱 儒)歲享은 年例에 依하여 陰 3月14日에 全南 羅州郡 金川面 竹川里 玉峴 墓庭에서 舉行한다.

◇ 翼元公 七代孫인 豐壤君(諱 碩)墓道는 後孫들에 依해서 封塋을 높이고 豐碑로 改碣한다.

◇ 遞信部에 勤務하는 按廉使公派 君會氏는 체신부 金融局 企劃課長으로 昇進하였다.

◇ 大宗會 本部에서는 3月24日에 83年度 第5次 理事會를 開催하고 定期總會開催에 대한 案件을 討議하였다.

◇ 現 忠南大學校 教授인 按廉使公派 泰喆氏는 今年 2月26日에 서울 大學校 大學院에서 農學博士 學位를 받았다. 泰喆氏는 稀世의 秀才로서 서울 大學校를 4年間 獎學生으로 卒業하고 同大學院에서 碩士課程을 履修하고 다시 네덜란드 國立大學院을 修了 하였다.

◇ 永同檢察支庁 檢査 翼元公派의 會瑄氏는 淸州地方檢察庁 檢査로 榮轉 하였다.

◇ 按廉使公派 樂會 君은 漢陽大學校 在學中에 今年度 施行 行政考試에 優秀한 成績으로 合格 하였다.

◇ 忠北 鎮川郡 鎮川邑 建松里에 居住하는 按廉使公派 權會 君은 今年度 大學入試 予備考查에서 堂堂 322點의 높은 成績을 얻어 서울 大學校 法學大學에 入學 하였다.

工業의 都市化 過程을 거치면서 國民의 經濟의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人들의 行動의 樣式도 着實하게 近代化 되어왔다.

그러나 오늘 날 大部分의 開發途上의 國家들은 先代의인 社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하루라도 速히 達成 하려고 꾸준한 努力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 短時日內에 성취 하려고 여러가지 수 段과 政策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成果는 急速한 社會的 變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中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나라는 그 中의 一員으로 二十餘年 間의 努力 끝에 中進國의 隊列에 몇몇하게 서게 되었다.

앞으로도 政府는 農業政策도 科學的인 機械化 經營으로 指向할 수 있도록 樹立하고 國民 또한 이에 呼應 해서 有效適切하게 國土를 啓發 할 것이며, 商工業面에서도 先進國과 對等한 立場에서 輸出入의 均衡을 爲해서 赤字 없는 무역을 이룩 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研究 해야 될일이 많을 것이다. (끝)

그러나 이러한 事態로 商工業이 成長되고 複雜해짐에 따라 過重한 業務量에 시달리게 되면 精神面에서는 남의 私生活에 關心을 가질 餘地가 없게 되고 남의 處地에는 相關하지 않음으로 自然히 이웃간에서 서로가 人事조차 없이 지내야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社會의 連帶意識은 날이 갈수록 사라져 가고, 道義心이 低下되며 따라서 萬事亨通이라는 金錢萬能의 時代를 招來할 것이다.

社會는 近代化 思潮로 말미암아 道義心의 源泉인 祖上을 崇拜하고 친족間에 和睦하는 思想이 날로 減退 되어 간다는 現實은 實로 寒心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는 國家가 先進國에 到達할 수 있는 近代化 水準을 指向하며 더욱 努力할 것은 물론, 禮義東方의 君子國이란 긍지를 가지고 崇祖와 睦族의 精神을 涵養하여 五千年 傳統의 美德을 지켜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 하다. (끝)

### 컴퓨터기술의 첨단을 걷는 희망전자개발은

#### 教育用·個人用·業務用·事務用·技術計算用·制御用...



희망 컴퓨터 제품별 규격

사양 / 모델	PC-8001A	HP-8001B	APPLE II	MZ-80
기억용량	32 KB	48 KB	48 KB/64 KB	48 KB
ROM	24 KB	30 KB	14 KB/22 KB	6 KB
화면구성	80행 x 25열	80행 x 25열	40행 x 24열	40행 x 25열
그라피기능	160점 x 100점	600점 x 200점	280점 x 192점	
사용언어	N-BASIC	N-BASIC	APPLE SOFT BASIC	M-BASIC/H-BASIC
영상	흑백 및 컬러	흑백 및 컬러	흑백 및 컬러	흑백

상기 제품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선봉을 일으킨 퍼스널컴퓨터로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각각 수백여종)와 주변 기기들이 개발 보급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배우고 활용할수 있는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품목입니다.

저희 희망전자개발은 1980. 3월 이 때 퍼스널컴퓨터를 개발 생산하여 학교, 직장, 개인용까지 보급을 하여온 경험을 토대로 보다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국민적인 퍼스널컴퓨터 보급에 힘쓰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株式會社 希望電子開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75-4  
(종로세운상가 3층 내열 303~307호)  
TEL. 261-4285, 272-7224

10%



說 傳

射 蛇 窟

서기 一五六一년(辛酉) 초가  
을 어느날 오후.....

충청도 목천(木川) 땅에 잣밭  
(栢田)이란 조그마한 양지바른  
마을이 있고, 이 마을 앞을 흐  
르는 시냇가 모래밭에서는 七  
~八명의 어린이가 땅을 뽀뽀  
홀리면서 전정놀이를 하고 있  
었다.

자칭 대장으로서는 나무칼을 휘  
두르며 진두지휘(陣頭指揮) 하  
는 민(敏)아 도령은 금년에 나  
이가 아홉살이지만 숙성하기가 十  
四~五세나 되어 보였다.

전정놀이는 도령님이 시키는  
대로 언제나 두원으로 갈려져  
한편은 수비, 또 한편은 공격  
으로 시작 되는데, 민아도령님  
은 언제나 공격편의 대장으로  
잔악한 어린이만 자기편에 붙  
어서 수비만을 뚫고 상대방의  
성(城)을 점령하고는 보라는 듯  
이 호탕한 웃음으로 만세를 부  
르곤 하였다.

그런데 이날 만은 아무리 힘  
을 다해 싸웠지만 전정놀이를  
하지 못하자 대장인 민아도령  
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어 잠잠한 칼로 땅바닥을 힘껏  
후려치고는 말없이 건너편 언  
덕바지에 가서 비스듬히 누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

전정놀이가 끝난 어린이들은  
자기 땅땀기를 찾아 어깨에 매  
고는 쇠팔을 비리고 손속이나  
산기슭으로 흩어져 가버리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남아서 세  
름 판을 벌리고 있었다.

무언가 생각에 잠겨있는 도  
령은 이제 무슨 묘안이라도  
생각났는지? 자리에서 벌떡일  
어나 두 주먹을 짊어지고는 부  
릅 뜬 눈으로 건너편 산 밑을  
바라다보았다.

「돌아?」  
도령은 씨름판에서 놀고 있는  
돌이를 불렀다. 돌이는 도령께  
에 드나드는 노비(奴婢)의 자  
식으로 일곱살 짜리 잔질이 있

다. 돌이는 한숨에 달려 와서  
조심스럽게 도령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돌아? 너 날 따라 와라」  
옆에 놓아 둔 뽀뽀나뽀 활을  
집어 잡고는 줄을 한번 당겨보  
면서 도령은 부드럽게 말했다.  
「돌아, 너는 저 밑에 얹은 여  
우나 오는 가느냐」  
「어떻게요?」  
「돌아, 너는 저 밑에 얹은 여  
우로 건너 가서, 산으로 뽀  
뽀나, 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지만 하면 돼!」  
「안 되요, 그건 안 되요, 저  
근방에 가만 하면 아무기  
가 나와 잡아먹혀요!」  
돌이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 자리에 뒹기만 하고 있었다.  
「이 자식이 왜 못가?」  
도령은 활줄을 당겨서 화살을  
돌이의 가슴팍에 겨누었다.  
「정녕 못 가겠니? 못 가겠다  
면 이 활로 쏘 죽인다?」  
돌이는 겁에 질려서 새파란  
얼굴로 전신을 사시나무처럼  
떨기만 하였다.

도령은 돌이를 데리고 산 밑  
으로 갔다. 그곳에는 짙은 밀  
에 큰 바위가 있고 냇물은 그곳  
에 부딪혀서 큰 소(沓)를 일우  
고 있는데, 그 바위 밑 골속에  
는 큰 이무기가 살고 있었으며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접근만  
하면 잡아먹는다는 말은 돌이  
도 몇 번이나 들은 바 있는 것이  
다. 그래서 그곳은 사람이 접  
근하지 않는 곳으로, 근방에는  
가시덤불만 어수선하게 우거져  
있고 먹물 같은 물 가운데는 수  
조만 일렁거리고 있었다.  
「네는 이미 석양이 가깝다. 그  
늘진 나무가지에는 다람쥐가 오  
르랑 내리랑하고 숲 속에는 새  
들이 지저귀고 있으나 돌이에  
게는 모두가 겁나고 무서운 상  
대였다.  
「돌아?」  
「네.」  
도령님이 부르는데, 돌이는  
대답조차 겨우 했다.  
「돌이 너, 저 골 속에 사람

잡아먹는 이무기가 있다면 말  
들었지?」  
「네.」  
「내가 오늘 그 나쁜놈의 이  
무기를 잡아 죽일 터이니 너  
는 나를 좀 도와야 한다.」  
「어떻게요?」  
「돌아, 너는 저 밑에 얹은 여  
우로 건너 가서, 산으로 뽀  
뽀나, 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지만 하면 돼!」  
「안 되요, 그건 안 되요, 저  
근방에 가만 하면 아무기  
가 나와 잡아먹혀요!」  
돌이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 자리에 뒹기만 하고 있었다.  
「이 자식이 왜 못가?」  
도령은 활줄을 당겨서 화살을  
돌이의 가슴팍에 겨누었다.  
「정녕 못 가겠니? 못 가겠다  
면 이 활로 쏘 죽인다?」  
돌이는 겁에 질려서 새파란  
얼굴로 전신을 사시나무처럼  
떨기만 하였다.

민아도령은 이 목천 고을에  
서는 이름 높은 명문의 자제였  
다. 아버지는 일찌기 생원(生  
員)과 진사(進士)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또 별시(別試)에서 문  
과(文科)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  
제해서 지금은 사헌부(司憲府)  
의 지평(持平)으로 있고 조부  
(祖父)김석(金錫)은 진사(進  
士)로서 문장의 평판이 높았고  
그 이상의 조상들이 모두 청렴  
한 벼슬아치로 처세하고 문장  
또한 고명하니 목천 땅에서는  
이름 따를 집안이 없었다.

민아도령님은 구암공(龜岩  
公)의 둘째 아들로서 이름이 시  
민(時敏)인데 동리의 아나차들  
이나 하인배들은 「민아도령  
님이라 부르곤 있었다. 이 민  
아도령은 그의 형님인 시회(時  
梅)와는 달리 글 공부에는 전  
연 마음이 없고 언제나 골목이  
나 냇가에서 씨름이나 전정놀  
이를 즐기며 집안 여자들이나  
하인배들을 골려주고는 큰소리  
로 웃고 즐겼다. 그러나 도량  
(度量)이 넓고 생각이 깊으며,  
장난이나 놀이를 해도 언제나  
약한 자의 편이어서, 문중의 부  
로(父老)들로 부터 축망의 대상  
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민아도령이 이곳 물 가운데  
사람과 우마(牛馬)들을 잡아먹  
는 이무기가 있다는 말을 들은  
지는 벌써 몇년 전이었다. 그  
래서 항상 「그놈의 이무기를 내  
손으로 잡아 죽여야지」하는 마  
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전정놀이에서 상대방을 꺾어  
가지 못한 분노를 참지 못하  
다, 오늘은 기어코 그 놈을 잡  
아 없애려고 결심한 것이다.  
용솟음 치면서 빙빙 돌고 있  
든 물 위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굴 속에서 이상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도령은 크게 기침  
을 하고 다시 전정놀이를 집중시  
켰다.  
물 위가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굴 앞에 물 기둥이 서는 듯하  
니 붉은스래한 물체가 물 위로  
수출했다.  
「이제는 됐다.」  
도령은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 붉은 물체는 바위에 붙어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무기다!」  
도령은 화살을 겨누었다.  
이무기는 돌이를 향해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머리는 작은  
솔무정만 하고 몸통은 아마  
질문만 했을지다.  
도령은 활 줄을 힘차게 당기  
고 전정놀이를 화살을 날렸다.  
쑈대 화살은 그대로 이무기  
놈의 머리에 명중하였다.  
이무기는 꼬리로 물바닥을 치  
면서 몇 번이고 머리를 내 흔들  
었다.  
「돌아! 빨리 오나라!」  
도령의 큰 소리에 돌이는 놀

래서 고개를 들고 건너편을 보  
았다. 도령은 돌이에게 「빨리 오  
라! 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영  
문을 모르는 돌이는 「이제 살  
았다」는 듯이 바위를 내려와서  
도령의 앞에 다가섰다.  
「돌아! 너 저것 좀 봐.」  
돌이는 도령이 가르치는 곳을  
보았다. 그야말로 옛이야기 속  
에서도 듣지 못한 큰 구렁이가  
아직도 비틀거리고 있었다.  
「도령님 저기 뭐예요?」  
「저놈이 이무기다.」  
도령의 말에 돌이는 다시 한  
번 놀랐다.  
몸을 억지로 비꼬면 이무기  
는 힘이 다 했는지? 움직이지  
않더니 물 위로 서러려 떨어졌  
다.  
「가자!」  
도령과 돌이는 서산으로 넘  
어가는 해를 바라 보면서 집으  
로 돌아왔다.  
이 때부터 잣밭 마을사람들  
은 이곳을 충무공(忠武公)의  
사사굴(射蛇窟)이라 하는데 그  
때 아홉살의 도령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지키다가 전사한 공  
훈으로 영의정(領議政)과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에 추증(追  
贈)되고 충무공(忠武公)의 시  
호(諡號)를 받으신 김시민(金  
時敏)장군의 일화(逸話)로서 지  
금도 천원군 병천면 가천리(天  
原郡 並川面 田里 加田) (栢田)  
부락 앞에는 그때 그 굴이 남  
아 있다. (끝)  
(元榮記)

大 宗 協 議 開 來 學 會 報 刊 行 非 易 事  
往 史 尋 眞 譯 舊 風 常 任 主 力 克 成 功  
正 儀 出 二 十 二 世 孫 珠 昌 謹 稿

贊 助 人 名 單

- (前號에서 계속)  
參 萬 圓 翼 元 公 派 漳 會 (仁川市)  
六 萬 圓 按 廉 使 公 派 泰 永 (鍾 路)  
六 萬 圓 按 廉 使 公 派 燦 默 (城 南 市)  
六 萬 圓 都 評 議 公 派 鳳 會 (釜 山 市)  
六 萬 圓 翼 元 公 派 基 成 (仁 川 市)  
六 萬 圓 清 州 市 宗 親 會 (清 州 市)  
六 萬 圓 忠 清 北 道 宗 親 會 (清 州 市)  
六 萬 圓 翼 元 公 派 亨 會 (清 州 市)  
六 萬 圓 翼 元 公 派 洪 信 (大 田 市)  
六 萬 圓 翼 元 公 派 名 會 (木 浦 市)  
六 萬 圓 都 評 議 公 派 永 鐸 (開 峰 洞)  
六 萬 圓 按 廉 使 公 派 思 仁 (大 邱 市)  
六 萬 圓 按 廉 使 公 派 鳳 俊 (大 邱 市)  
六 萬 圓 都 評 議 公 派 龍 吉 (仁 洞)  
六 萬 圓 都 評 議 公 派 會 秀 (大 峙 洞)  
六 萬 圓 都 評 議 公 派 壽 鳳 (聖 水 洞)  
六 萬 圓 按 廉 使 公 派 洙 萬 (新 林 洞)  
六 萬 圓 書 雲 觀 正 公 派 寬 浩 (新 林 洞)  
六 萬 圓 大 司 成 公 派 應 教 (方 背 洞)  
六 萬 圓 按 廉 使 公 派 君 會 (葛 月 洞)  
六 萬 圓 都 評 議 公 派 泰 雄 (新 內 洞)  
六 萬 圓 都 評 議 公 派 堂 秀 (加 里 峰 洞)  
六 萬 圓 都 評 議 公 派 泰 喆 (九 宜 洞)  
六 萬 圓 都 評 議 公 派 在 信 (扶 餘 郡)  
六 萬 圓 都 評 議 公 派 浩 山 (義 城 郡)  
六 萬 圓 按 廉 使 公 派 仁 默 (清 州 市)  
六 萬 圓 按 廉 使 公 派 興 太 (寶 城 郡)  
六 萬 圓 大 司 成 公 派 寄 石 (槐 山 郡)  
六 萬 圓 翼 元 公 派 桂 會 (靈 光 郡)  
六 萬 圓 翼 元 公 派 世 龍 (利 川 郡)  
六 萬 圓 提 學 公 派 道 應 (天 原 郡)  
六 萬 圓 翼 元 公 派 逢 水 (新 亭 洞)  
六 萬 圓 按 廉 使 公 派 在 晚 (清 州 市)  
六 萬 圓 譜 典 出 版 社 李 相 洙 (大 田 市)  
壹 萬 圓 按 廉 使 公 派 泰 健 (貞 陵 洞)  
壹 萬 圓 按 廉 使 公 派 泰 健 (貞 陵 洞)
- 以上會報發刊을 위한贊助金  
(前號에서 계속)  
貳 百 萬 圓 按 廉 使 公 派 卿 辰 (徵 慶 洞)  
五 拾 萬 圓 按 廉 使 公 派 喆 會 (安 養)  
貳 拾 萬 圓 提 學 公 派 裕 植 (在 美)  
五 萬 圓 按 廉 使 公 派 在 禮 (安 養)



# 文廟沿革 (1)

**△儒敎의 起原**  
우리 나라에서 儒敎의 淵源은 가마득하다. 그러므로 國家政治의 大本은 儒敎에 두고 地方의 教化는 國家의 政治上 가장 重大한 事業의 하나이었다.

이렇게 主要한 機關으로 設立된 것이 卽 오늘날 까지 도 各 郡에 남아 있는 鄉校인 것이다

鄉敎는 本來 中國에서 發生한 孔子의 思想을 尊信하는 道敎로서 堯·舜·禹·湯·文武周公의 道德을 集大成한 孔子의 敎學을 말함이나 『孝悌忠信』의 理念을 日常生活의 信條로 하는 實踐道德에 努力하고 『仁

으로서 모든 道德을 一貫하는 最高理念으로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이룩할 수 있는 人間의 本質養成을 宗旨로 삼는다.

儒敎의 敎理는 成文化된 여러 經典에 依한 師傅의 敎化로 傳授되고 淵源을 이루어왔다. 敎理는 즉 『修己』와 『治人』에 歸決시켰고 詩傳과 書傳·周易·禮記春秋의 五經과 論語·孟子·中庸·大學의 四書는 儒敎에서 가장 重要한 經典이다.

孔子가 죽은 뒤에는 儒敎가 天下에 傳派되어 學者들의 主唱에 따라 여러 學派가 일어났는데 證자와 子思를 거쳐 孟子로 이어진 學派가 正統의 淵源을 이루었고, 孟子는 仁·義·禮·智의 道를 세워 性善과 養氣의 說을 주장하고 仁政의 必要性을 力說하였다. 한편 荀子는 孟子의 性善說에 反對해서 性惡說을 말하고 勸學의 重要性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奏始皇이 天下를 統一하자 焚書의 殃禍를 만나 經서는 거의 消滅된 狀態에 奉하고 말았으니 漢代에 와서 武帝가 山陰된 經書를 蒐集하고 다시 編纂하고 文敎에 主力하며 이를 장려함으로써 儒敎는

다시 復興하였다.

**△儒敎의 傳來**  
우리 나라에 儒敎가 처음으로 傳來한 年代는 確實히 알 수 없다.

그러나 唐나라에 遊學生을 보내고 國子學을 세운 것으로 미루어 보면 벌써 三國時代에 儒敎가 一般화된 事實을 짐작할 수 있다.

高句麗에서는 소수림왕二年(三七二)에 太學을 세워 王公卿相의 子弟를 敎育하였고, 百濟에서는 고이왕二年(二八五)에 王仁이 日本에 千字文과 論語를 傳한 事實이 있다.

新羅에서는 眞德王二年(六

四八)에 金春秋가 唐나라에 갔다가 國學에서 行하는 釋奠祭를 參觀하고 돌아온 後부터 비로써 釋奠의 禮를 알게 되었고 聖德王十六年(七一七)에 王의 長子인 太監 金守忠이 唐나라에서 돌아올 때 文宣王(孔子)과 十哲 七十二弟子의 画像을 王에게 獻上하였고 王이 大學에 奉安하도록 命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儒學은 오로지 敎化의 태두리를 벗어 나서 다 만 文學을 爲主로 하여 經典과 史記에 通達하고 法律의 制度를 잘 알아서 政治에 運用하는 것을 첫째 目的으로 삼고 둘째는 詞賦와 文章에 能通한 學者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때의 儒敎란 內求의 이 아니고 오직 外求의 이며 어딘가 確實한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고 手段을 爲하는 학문이었으나 新羅의 末期에 와서는 薛聰이나 孤雲 崔致遠 같은 巨儒가 出現하였다.

高麗에서는 國初부터 國子監에 文宣王의 祠堂을 지었는데 成宗二年(九八三)에 博士 任成老가 宋나라에서 오면서 文宣王廟圖를 獻上하였고 忠烈王(二二七四~一三〇八) 때에 贊

成事 安裕가 同志들과 더불어 『瞻學錢』이란 育英機關을 만들어서 敎學을 勸奨하였고, 學士 金文鼎은 元나라에서 先聖十哲의 塑像과 祭器를 얻어 와서 國學을 다시 整頓하여 塑像을 奉安하고 東·西廡에는 七十弟子의 位牌를 모셨고 忠宣王은 國學을 成均館으로 고쳤으며, 恭愍王 때 文宣王의 塑像을 肅文館으로 移安하였더니, 그 後에 元나라 사람 耶律希逸이 使臣으로 와서 보고 『文廟로서는 殿宇가 너무 좁고 喪失됨이 많다고 해서 王에게 勸告해서 다시 重建하였다.』

그러나 高麗 때는 佛敎의 布敎가 極度에 達하여 儒敎의 精神은 佛敎의 精神과 相容되지 않았고, 況且 朝廷에서는 武를 尙상하고 文敎의 振興은 放置의 狀態에서 아주 좌절된 時期도 몇 번이나 있었다. 또 高宗王 以後로는 여러번 蒙古의 침공을 받게 되어 高麗의 文化는 湖風에 蹂躪되고 漢學의 敎習은 僧侶에 依해서 겨우 命脉을 保全하게 되어 都城의 國學마저 荒廢함이 그 極에 達하였으니, 그때 儒臣 安裕는 이를 慨歎한 나머지 한 篇의 詩로서 그때의 상황을 後世에 傳하기도 했다.

均館을 設立해서 最高學府로 삼아, 國王이 親히 孔子의 廟에 제사를 지내었으며, 經學을 請하게 하고 東·西·南·北의 四學을 設立하여 人材를 養成하는 한편, 八道의 長官에게 命令해서 鄉校의 復興을 圖謀하였다.

漢陽의 成均館文廟는 一三九八年(太祖 七戊寅) 七月에 지었는데 廟制는 南向으로 凡五間이었고 東西에 各各 一가 있고 神位는 위패이었으나 不過 三年만인 定宗大王은 一四〇七年(太宗 七丁亥) 三月에 다시 文廟를 重建하였고 世宗朝에 와서는 古今을 參照해서 『鄉學事目』을 制定하며 鄉校의 規模를 定하였다.

그 鄉學事目의 各節目을 翻譯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 鄉敎는 府·牧·郡·縣의 所立이니, 先聖을 尙상하고 儒學을 敎育하며 鄉土의 風俗 敎化를 管掌한다.

○ 鄉校에는 敎導官과 學長을 두 고 禮曹에서 이를 任命한다. 敎官은 그 鄉土의 士林中에서 師表될만한 者를 選擇起用함을 原則으로 하되 萬若 內에서 求하여야 한다.

○ 敎導官은 四品官 學長은 六品官으로서 鄉校에서 衣食한 다.

○ 鄉校에 就學하는 生徒는 이를 儒生이라 稱하며 府와 牧에 九十人, 都護府에 七十人 郡에 五十人, 縣에 二十人으로서 한다.

○ 儒生은 兵役과 戶稅를 免除하고 鄉校에서 食料를 供給한다.

○ 儒生中 成績이 우수한 年長者로서 大衆이 推服하는 者一人을 選任해서 掌議로 하고, 二名은 有司로 하며, 다시 二名을 輪選해서 直月로 하여 鄉校의 事務에 就한다.

○ 監司(長官)는 每年, 管内를 巡行할 때, 鄉校에 가서는, 반드시 儒生을 試驗하고, 敎官을 督勵한다.

○ 儒生으로서 成績이 優秀한者는 敎官이 이를 禮曹에 報告

하면 禮曹에서는 포상을 하고 生員이나 進士에 薦進시키며 或은 地方官職에 補用하거나 國學에 進學시킨다.

○ 儒生으로서 年過四十에 學業을 成就하지 못하여 벼슬에 나가지 못한 者는 敎官이 이를 禮曹에 報告하여 兵曹로 移牒 兵役에 服務케 한다.

○ 鄉校에는 『學田』을 下付하고 鄉校에 私財를 捐出한 者는 監司가 이를 포상한다.

○ 儒生은 이러한 制度로 發達해서 先後繼承한 바이나, 이로 미루어 볼 때 鄉校는 地方官의 經營과 管理下에 있는 地方官의 德化敎育을 尊尙하며 人心을 啓發하여 風俗을 美化 함은 물론이요, 祭田과 敎育 또한 여 기서 育成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鄉校設立의 精神은 聖賢을 제사하고 後學에게 修身齊家의 道를 가르쳐서 鄉黨에 人倫을 밝게하며 士大夫의 節義를 完全케 하고 儒道를 위해서 顯著한 功績을 남긴 碩學名儒는 鄉校에 配享해서 血食千秋하고 流芳百世하면서 그 遺風을 欽仰하게 하여 地方의 敎化振作에 의범으로 삼았다.

**△文廟의 沿革**  
古書에 依하면 『東國舊無鄉校 禮니 高麗 忠烈王時에 江陵按 廉使 金承印이 花浮山 硯滴岩 밑에 鄉校를 창건하니 여러 고을(列邑)이 따라서 文廟를 지었고, 忠肅王 때는 按廉使 安軸가 襄襄과 通川兩郡에 聖廟를 建立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가 東國文廟의 始初이며 朝鮮太祖가 即位하여 慶興과 甲山에 鄉校를 建立하고 濟州에도 鄉校를 建立한 것이 李朝에서 는 처음일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元榮記)

인 廢妃 尹氏의 賜死된 事實을 回想하면서 失政을 追恨해서 一四九八年의 戊午土禍와 一五〇四年에 甲子土禍를 일으켜서 士林派를 大量으로 屠殺하고 經筵과 大提學을 廢止하고 成均館의 文廟位牌를 移撤하여 그 곳에 遊樂場을 만들었으니 儒敎의 復興은 五里霧中으로 사라졌더니 一五〇六年에 中宗이 反正하자 一次 事業으로 成均館을 重修하고 中國의 制度를 본 따서 廟庭碑를 세웠다.

壬辰倭亂 때는 또 成均館이 燒燬되었는데 一五五〇年(宣祖 二十三庚寅)에 大成殿을 重建하고 石峰 韓濩로 하여금 懸板을 쓰게 하였고, 明倫堂에는 두 개의 懸板이 걸렸는데 그 하나는 中國에서 朱子의 글씨를 模寫해 와서 雕刻하였고 또 하나는 一六〇六年(宣祖 三三丙午)에 明나라 使臣 朱之蕃이 와서 세웠던 것이다.

一六三六年(仁祖 二四丙子)에는 南漢山城 避亂中에 太學 士羅以俊과 그 典僕 鄭信國 등이 五聖十哲의 位牌를 開元寺에 奉安했다가, 다음해 봄에 大成殿으로 遷安하였다.

이렇게 되니 鄉校의 敎官이 管掌하는 職務에 文廟의 제사와 鄉子弟의 敎養에만 그치지 않고 恒常地方의 風俗 淳化의 重任도 지고 있었다.

또 敎官은 그 地方의 孝子·烈婦와 嘉言 善行을 調査해서 禮曹에 奏상을 請願하고 혹은 士民의 輿論으로 異端과 邪說을 防止하고 禮儀의 勸行을 勸하며 風紀의 文란을 制裁하는 등 그 地方 文敎行政의 一部를 맡고 있었으니 卽 鄉校의 敎官은 地方에서 聖廟의 祀官이며, 後進의 敎育者일 뿐 아니라, 風俗敎化의 指導者도 되고, 美風良俗을 害치는 行爲에 對해서 審判官이었으니 當時의 鄉校는 地方敎化機關으로서 그地位나 權위는 이를 보더라도 可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燕山君은 一四九四年 五行의 인조(仁祖)는 忠肅(中宗)으로 바로 잡습니다.

本會報 第三號 五頁 三段 끝으로 四行의 인조반정(仁祖反正)은 忠肅반정(中宗反正)으로 五行의 인조(仁祖)는 忠肅(中宗)으로 바로 잡습니다.

訂正

忠南扶餘郡林川面豆谷里

金 在 信

慶北義城郡點谷面鳴鳥洞

金 浩 山

서울 九老區 加里峰洞 七一五

金 堂 秀

漢陽建築設計事務所

代表 金 燦 默

城南市太平洞三三〇九一四七五

電話 ② 〇四九〇 ② 一三六一

자 ② 二五〇五 二〇一七

安東金氏大宗會 前理事

金 逢 水

서울 江西區新亭洞 九九七一五

電話 六〇三一 九九〇

遷信部

遷信金融局企劃課

金 君 會

漢陽幼稚園 設立 理事長

城南市安東金氏宗親會會長

城南市建築審議委員會委員

一級建築士·工學碩士

一級施工技士

清州稅務著法人稅課

課 長 金 仁 默

清州市牛岩洞二六八一〇



# 舊安東金氏와

## 新安東金氏의 区分 (4)

(前號에서 계속)  
 전호(前號)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신 안동김씨는 세도(勢道)  
 의 기초가 확립되었으나 한편  
 신안동 김씨 집안 내에서 대립  
 과 갈등이 벌어져 우의정 김달  
 순(右議政 金達淳)은 관직을 사  
 탈 당하고 사사(賜死) 되는 지  
 경에 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다  
 른 한편으로는 손조(淳祖)의 세  
 자(昊·憲宗의 父)의 장인인 풍  
 양 조씨의 조만영(趙萬永)이  
 어영대장(禦營大將)이 되어 정  
 권의 중추에 참여하게 되면서  
 신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사이  
 에는 정권 쟁탈을 위한 암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풍양 조씨 세  
 도는 얼마 안가서 퇴조되고 다  
 시 신안동의 김조순(金祖淳)  
 의 아들 김좌근(金左根)이 영  
 의정(領議政)이 되고 좌근(左  
 根)의 六촌(興根)이 또 영  
 의정이 되어 세도는 다시 일어  
 나기 시작했다.

의 관서를 역임하는 등 十촌  
 안밖의 하나가 끼리 요직을 돌려  
 가며 두루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손조(淳祖)·현종  
 (憲宗)·철종(哲宗)의 三代에  
 걸쳐 약 六十년 동안 신안동  
 김씨의 이(履)·순(淳)·근(根)  
 병(炳)자형열의 四대를 중심  
 으로 그 일족이 세도를 잡았고 국  
 사를 마음대로 주름 잡았다. 그  
 러나 신안동의 세도는 一八六  
 四년에 철종이 재위(在位)十四  
 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고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이 하응(李  
 昞應)의 아들인 고종(高宗)이  
 왕위에 올라서 대원군이 정치  
 를 하게 되면서 부터 신안동김  
 씨 세도의 막(幕)이 내리게 되  
 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김병  
 학(金炳學), 김병국(金炳國)  
 의 형제가 영의정을 지낸것을  
 비롯해서 김병덕(金炳德) 좌  
 의정, 김병시(金炳始)가 영의  
 정을 지냈다.

이조 말엽에(李朝末葉)의 「방  
 랑시인 김삿갓」도 신 안동김  
 씨의 중시조 김국효(金克孝)  
 (本名)이 김병연(金炳淵)이다.  
 김삿갓의 조부(祖父) 김익순  
 (金益淳)이 손조 때부터 신천  
 부사(宣川府使)로 있으면서 二  
 八一年에 흥경래의 난(洪景  
 來)의 亂이 일어나자 적에게 항  
 복했는데 난이 평정된 후 모반  
 대역죄(謀叛大逆罪)로 처형되  
 면서 부터 그의 일문은 폐족(廢  
 族)이 되고 따라서 후손의 벼  
 슬길도 막혀 버리니 비록 재  
 기(才氣)는 있었으나 자신의 소  
 망을 풀어 볼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국 각처를 방랑  
 하면서 풍자 시로서 자신의 울  
 분을 달았던 것이다.  
 신 안동김씨의 근대 인물(近  
 代人物)로는 안성문과(謁聖文  
 科)에 급제(及第)하여 교리(校  
 理)·정언(正言)등을 역임하고  
 이조(吏曹)와 호조(戶曹)의 참  
 의(參議)를 지냈고 신 학문(新  
 學門)의 선각자로 유명한 김옥  
 균(金玉均)·독립 운동자(獨立  
 運動者)인 김좌진 장군(金佐  
 鎭將軍)과 김필진(金弼鎭)김  
 완규(金完奎), 이조판서를 지  
 냈으며 화가(畫家)로도 유명한  
 김성진(金晟鎭) 등이 있다.  
 이상에 열거한 바와 같이 이  
 조 말기(李朝末期)에 와서 손  
 조(繩祖)·현종(憲宗)·철종(哲  
 宗)의 三代에 걸쳐 六十여년간  
 을 두고 신 안동김씨 일문(一門)  
 권을 쥐고 세도정치를 해 왔다.  
 이조 말엽의 세도정치가 되면  
 안동 김씨를 연상하게 되고 세  
 도정치를 한 안동 김씨가 구안  
 동인지? 신 안동인지? 구  
 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한가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안동 김씨의 사건  
 이 나오면 선생이 학생들에게  
 「안동 김씨 손들어 보라」한다.  
 손을 들면 구 안동과 신안동의  
 구별도 없이 무조건 신 안동김  
 씨 일색(一色)으로 간주해 버  
 린다.

그리하여 국구(國舅)인 문근  
 (汶根)의 형 김수근(金洙根)  
 과 문근의 양가(養家) 四촌인 김  
 영근(金泳根)·국구인 김조근  
 (金祖根)의 六촌 김보근(金輔  
 根)등도 이조판서(吏曹判書)를  
 둘러 가며 했으며 그뿐 아니  
 라, 그 아래 병자 항렬(炳字行  
 列)에 이르러서도 김수근(金  
 洙根)의 아들 김병학(金炳學)  
 김병국(金炳國)의 형제가 영  
 의정(領議政)을 지냈고 김영근  
 (金泳根)의 아들로서 김좌근  
 (金左根)에게 양자간 김병의  
 (金炳翼)은 이조(吏曹)·예조  
 (禮曹)·공조(工曹) 판서를 지  
 냈고, 김정근(金正根)의 아들  
 김병주(金炳柱)와 김홍근(金  
 興根)의 아들 김병덕(金炳德)  
 김좌근의 아들 김병지(金炳  
 池)·김교근(金敎根)의 아들  
 김병교(金炳喬)같은분들이 모  
 두 이조 판서를 비롯해서 각 조

이조 말엽에(李朝末葉)의 「방  
 랑시인 김삿갓」도 신 안동김  
 씨의 중시조 김국효(金克孝)  
 (本名)이 김병연(金炳淵)이다.  
 김삿갓의 조부(祖父) 김익순  
 (金益淳)이 손조 때부터 신천  
 부사(宣川府使)로 있으면서 二  
 八一年에 흥경래의 난(洪景  
 來)의 亂이 일어나자 적에게 항  
 복했는데 난이 평정된 후 모반  
 대역죄(謀叛大逆罪)로 처형되  
 면서 부터 그의 일문은 폐족(廢  
 族)이 되고 따라서 후손의 벼  
 슬길도 막혀 버리니 비록 재  
 기(才氣)는 있었으나 자신의 소  
 망을 풀어 볼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국 각처를 방랑  
 하면서 풍자 시로서 자신의 울  
 분을 달았던 것이다.  
 신 안동김씨의 근대 인물(近  
 代人物)로는 안성문과(謁聖文  
 科)에 급제(及第)하여 교리(校  
 理)·정언(正言)등을 역임하고  
 이조(吏曹)와 호조(戶曹)의 참  
 의(參議)를 지냈고 신 학문(新  
 學門)의 선각자로 유명한 김옥  
 균(金玉均)·독립 운동자(獨立  
 運動者)인 김좌진 장군(金佐  
 鎭將軍)과 김필진(金弼鎭)김  
 완규(金完奎), 이조판서를 지  
 냈으며 화가(畫家)로도 유명한  
 김성진(金晟鎭) 등이 있다.  
 이상에 열거한 바와 같이 이  
 조 말기(李朝末期)에 와서 손  
 조(繩祖)·현종(憲宗)·철종(哲  
 宗)의 三代에 걸쳐 六十여년간  
 을 두고 신 안동김씨 일문(一門)  
 권을 쥐고 세도정치를 해 왔다.  
 이조 말엽의 세도정치가 되면  
 안동 김씨를 연상하게 되고 세

**廣告接受案内**  
 本會報를 發刊함에 즈음 해서  
 各宗親들로부터 人事廣告의 要  
 請이 있음으로 7월24일 理事會  
 議에 提案한바 다음과 같이 揭載  
 料를 徵收하기로 決議하였음을 通  
 告합니다.

1号=7cm×1cm	5,000원
2号=7cm×2cm	8,000원
3号=7cm×3cm	10,000원
4号=7cm×4cm	15,000원
5号=7cm×6cm	20,000원
6号=7cm×7cm	25,000원
7号=9cm×7cm	30,000원
8号=9cm×11.5cm	35,000원
9号=9cm×23cm	60,000원

**原稿募集**  
 本報發展을 위하여 江湖諸宗의  
 歡迎하오니 다음 要領에 依하여 作成送  
 付해 주시면 採擇登載하겠읍니다.

- 一、論文 崇祖陸族과 倫理道德에 寄與되는 內容
- 一、各派宗中 및 宗親會에서의 行事에 對한 經過記事
- 一、宗親中에서 있었던 美談佳話 및 善行 職位의 陞進이나 異動事項、海外旅行關係 逸話
- 一、先祖에 關係되는 傳說
- 一、其他 宗親들에게 알리고 싶은 事項

# 蜂針의 神秘

**蜂針이란**  
 꿀벌의 毒을 母체로한 純粹한 民間療法이다. 即 꿀벌이 毒을 噴出하는 分泌腺은 두가지가 있다. 即 하나는 酸性毒液이며 또 하나는 非揮發性의 알카리液을 同時に 射出한다. 이와같은 異質의 毒液을 同時に 射出할수 있는것은 꿀벌뿐이다. 一回에 射出되는 蜂毒量은 約一萬分の 2.3g 이다.

**蜂針의 效力**  
 蜂針을 놓으면 表在性血管의 一切收縮現象으로 血液循環이 旺盛해진다. 血液像에 미치는 影響으로 赤血球 白血球 血少板 凝集素等의 生成增加로 造血作用이 잘될 뿐더러 血液自體의 抗性增加로 細菌을 잡아먹는 白血球의 生成促進으로 細菌性疾患도 잘 낫게 되는 것이다. 電氣生理作用 自律神經系 및 內分泌系의 荷尔蒙分泌調節 스트레스 解消等 以外에 消炎鎮痛 鎮靜作用에 탁월한 效力이 있음은 많은 實驗이나 學術論文에서 立證하고 있으며 많은 蜂針研究家(國內外)에 依해서 發表된 所見은 한결같이 蜂針은 單順이 疾病의 治療에만 局限되는것이 아니라 豫防으로서도 有效함을 指摘하고 있다.

**蜂毒이란**  
 蜂毒液은 靑리트머스지에 赤色으로 變하는 酸性反應을 나타내며 물에 溶解되지 않고 乾燥되면 反應이 전혀없다. 特히 蜂毒에는 페니스링 1000倍의 效能이 有함은 學界에 널리 알려져 있다. 蜂毒에는 炭酸, 塩酸, 蟻酸, 히스타민, 고딘, 트리프르환, 설과等 40여가지의 成分이 含有되고있다. 蜂毒의 治療效果는 인산마그네슘과 설과가 特히 作用하며 인산마그네슘을 乾燥한 蜂毒重量의 0.4%가 含有하고 있다. 蜂毒에는 微量의 灰分中에 鐵分과 칼슘이 含有되고 있다. 蜂毒에는 히스타민과 단백질도 있다.

**蜂毒이 人體에 有效하다고 認定되는 特質**  
 류마치스, 神經毒作用, 組織障害作用, 溶血作用, 血壓降下, 히스타민作用, 強力한 殺菌 抗性物質作用 副腎아드레나린 分泌促進, 코티손과 같은 作用

**治療效果**  
 神經痛, 胃下垂, 치질, 근육통, 요통, 충농증, 肩痛, 頭痛, 齒痛, 천식, 高血壓, 低血壓, 갑자기 허리 못쓸때, 關節류마치스, 당뇨병, 夜尿症, 中風 그리고 各種 암에도 有效하고 其他 疾病의 治療가 可能하다.

**現代蜂針研究院**  
 院長 김찬경  
 서울·特別市東大門區忘憂洞127의33號  
 電話: 434~5864 · 435~9410